

## Sure Hope on a Hazardous Journey 위험한 여정 가운데 분명한 소망 (시편 121)

### A Challenging Task, Question & Answer (1-2)

Ever since I went trekking in the Himalayas 25 years ago, I've become more aware of the attempts that many people have made to reach the summit of such mountains. Making it to a 4200 m base camp was challenging enough.....but the task of climbing to the peak of any number of Himalayan mountains is gruelling because the journey up is perilous. For any trekker or climber to make it to the destination of the highest point that is the end point of the journey, they need help. For the group of friends I was with, our help came in the form of paying a few hundred dollars to an elite Nepalese Sherpa guide who had grown up in the area & made that same trip hundreds of times before. We had great confidence that he would get us to Annapurna Base Camp & back to civilisation again.

But to have continued just beyond Base Camp & attempted to climb Annapurna 1 nearly 4000 m higher again would have required a lot more help...It would have cost each of us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to organise the necessary help needed to reach the top & it would have been a lot more dangerous ... statistically 1/3 of us wouldn't have made it up that particular mountain ....

Psalms 121 is a song about pilgrims making their journey of ascent to the hills that represented Jerusalem — a city that stands on hills at an elevation of ~ 785 m — a trek that would end in the worship of God at the temple on the hill of Mt Zion.

We think of various present-day metaphors that help capture the background of the challenge — 'a difficult road,' 'a mountain to climb,' 'a hazardous journey.' So when the Psalmist says, V1,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From where does my help come?' He's looking to the destination & wonders how he's going to reach it. The ascent to Jerusalem was a challenging task, physically ...but more than that, it was ultimately an impossible task, spiritually....because it meant sinners approaching the almighty, holy, true & living God.

25년 전 히말라야 등반을 다녀온 이후, 저는 그 산 정상에 이르기 위해 도전했던 사람들에게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4200m 위치에 있는 베이스캠프에 도달하는 것조차 아주 어려웠고, 그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은 더욱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정은 매우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등산가들이 여정의 종착점인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갔던 친구들은, 몇백 달러를 지불해, 네팔 셰르파 가이드를 고용했습니다. 그는 그 지역에서 자란 사람으로, 그 산을 수백 번 넘게 탔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산 정상에 이르게 한 후, 다시 베이스로 안전에게 돌아올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이스캠프를 떠나서, 4,000m 나 더 높은 안나푸르나 1 을 오르기를 시도했을 때, 우리는 이보다 더 큰 도움이 필요했습니다...그리고 우리가 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몇천 불 이상의 돈을 지불해, 더 큰 도움을 받는 게 필요했습니다...이는 생각 보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고, 통계적으로 본다면 우리 그룹 가운데 1/3 은 그 산을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121 편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산을 오르는 순례자들의 여정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 여정은 785m 위, 시온산 언덕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날의 은유로 표현할 때, 이를 “어려운 길”, “오르기 힘든 산”, “위험한 여행”으로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1 절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말할 때, 이는 그가 그 목적지를 보고, 거기에 어떻게 오를지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른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어려운 도전이었으나...영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도전과도 같았습니다...왜냐하면 이는 죄인들이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때문입니다.

3 times a year pilgrims would make the journey — at the festivals of Passover, Pentecost & Tabernacles... Out of that comes the question 'where will I find help?' It's a challenging question ..... with a challenging answer,

v2, 'My help comes from the Lord who made heaven and earth.'

For the Psalmist.... His assurance of help is complete because there is no greater helper than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 earth. The question & answer though profoundly comforting, also present us with a great challenge

As I look to worship God with His people do I even sense the need for help... or have I fallen into a pattern of complacency, merely thinking it's a right rather than an awesome privilege? Is my tendency to fall again & again on God's help found in the grace of Jesus Christ by whose merits alone I come before Him..... or do I tend to come to corporate worship feeling worthy if I've had a spiritual journey through the week of which I might be proud ..... less worthy if I've fallen into sin?

It's why our services begin with a call to worship, a confession of our sin & a refocus on the grace of the Lord

Because no matter how well any of us might be doing in our struggle with sin ..... in & of ourselves we are still stained by it & fall far short of God's glory .... we need His help as we look to the destination... that is bowing before Him in acceptable worship... an infinitely greater challenge than climbing even the hardest mountain in the world.

순례자들은 일 년에 3 번, 유월절, 오순절과 장막절에 이 여정을 떠났고, 이런 여정 가운데 오늘 1 절의 질문과 같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2 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도움에 대한 그의 확신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주님의 도움보다 더 큰 도움은 없기 때문입니다. 1~2 절을 통한 질문과 답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안일함에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예배함이 큰 특권임을 잃고, 그 도움이 필요함을 깨닫지조차 못할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도움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감은 내 공로에 달려있다 생각해서, 한 주 동안 잘 생활 했으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갔다면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공 예배를 “예배의 부르심”으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에 다시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죄와의 씨름에서 승리했다 한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물든 자이며,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받을만하신 예배 가운데, 그 앞에 엎드려 절함에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입니다.

That's what we need to keep in mind when we hear these lavish claims about how God will help us...That they are metaphors that guarantee our perseverance in the Christian life, rather than promises that we will never have an accident, get sunburnt or be sinned against.

### Three Lavish Promises from the Great Keeper (3-8)

That's the nature of Hebrew poetry. It's vital we understand the context & the movement from worship of God with His people....to the destination at the end of life's earthly journey where we will be in His presence forever. On that journey in a fallen world, the Lord is the great keeper/guard/protector & from that gracious identity to us, we see 3 lavish promises....

- About our Frail Flesh (3-4)

v3, 'He will not let your foot be moved;.....'

The idea of one's foot slipping elsewhere in the Psalms is an illustration of stumbling in regard to life or faith. In other words, the promise is not about God preventing physical falls. Psalm 66:9 says that God 'has kept our soul among the living and has not let our feet slip.'

Psalm 73:2-3, 'as for me, my feet had almost stumbled, my steps had nearly slipped. For I was envious of the arrogant when I saw the prosperity of the wicked.'

But the promise here is that the Lord won't let the one whom He helps, fall spiritually .... for this reason: V3b, '...He who keeps you will not slumber. Behold, He who keeps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The Lord never sleeps — He is always attentive.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 것이냐는 질문을 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고나, 상해나, 죄를 절대 짓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인내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위대한 보호자에게서 오는 3 가지 약속 (3~8 절)

이것이 히브리 시의 본질입니다...이 시의 배경과 흐름을 이해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흐름이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부터, 이 세상 여정의 끝에 이르러, 하나님의 임재에 영원히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이런 은혜로부터 우리를 분별하시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3 가지 약속을 보게 됩니다.

- 우리 연약한 육신에 대한 약속 (3~4 절)

3 절 “주님께서는, 네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 주신다” (새 번역)

시편의 배경에서, 누군가가 헛발을 디딘다는 것은, 인생이나 믿음에 대해 실족계 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시편 66:9 편에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붙들여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시편 73:2~3 절에서는 말씀하기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으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약속은, 주님께서 도우시는 자는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을 것을 의미하며, 3 절 후반에서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3~4 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으시며, 그는 항상 깨어 계십니다.

Though, we remember the cry of the Sons of Korah from last week who concluded Psalm 44 with a lamenting question about why the Lord was apparently sleeping & cried out for Him to wake up in order to come to their rescue.

Two truths....we are frail....God isn't — In His regard to us His people — as it was for Israel, His people of old ... He never sleeps. Unlike us, He doesn't need to sleep. We can begin to think that He is either less than good or not really powerful — or that He has become distracted — like the author of Psalm 44 — inactive because He's sleeping. But that's impossible because He never sleeps.

If it seems like He is inattentive to our plight....He calls us to trust Him — to wait on Him — to know that because He never sleeps, there is a deeper, unseen, purposeful & ultimate sense in which He is keeping us.

Working in a health profession many years ago, when folk became weaker from a stroke or due to any number of injuries or diseases, they were at greater risk of falling over & injuring themselves further. But when they came to rehab, so long as there was an expert keeping watch over them... the very exercises that made them feel most vulnerable, were the very means of seeing them grow stronger, until they were discharged.

When things go wrong, we are often much more prone in the turmoil to feel spiritually desolate — like our foundation is slipping away .... But we have the perfect keeper who watches & guides us .... who in His powerful providence will even use our sense of helplessness to strengthen our faith.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44 편을 통해서 고라 자손들의 애절한 울부짖음을 보았고,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지 물으며,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하시라는 외침을 보았습니다.

두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우리는 연약하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잠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그리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생각하던가, 시편 44 편의 기자와 같이 생각하기를, 그는 그저 주무시고 계시며,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신 분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한 생각으로,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환란에 하나님께서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을 신뢰함 가운데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그는 절대 주무시지 않는 분으로, 그가 우리를 보호하심 가운데 훨씬 더 깊고, 보이지 않는, 궁극적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 병원에서 일할 때, 뇌졸중으로, 혹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쇠약해졌을 때, 그들은 넘어져 더 많은 부상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재활 치료센터에 와서, 의료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았고, 가장 취약한 부분을 위한 운동이, 그들이 다시 건강해 질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언가가 잘못되면, 우리는 종종 혼란 속에서 영적으로 황폐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마치 우리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처럼요...그러나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완전하신 분이 있습니다...그는 그의 온전한 섭리 가운데, 이런 우리의 절망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건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Psalm 94:18-19, 'When I thought, "My foot slips," your steadfast love, O Lord, held me up. When the cares of my heart are many, your consolations cheer my soul.'

Do you feel that your feet are slipping? Turn again to the great keeper who is perfectly reliable ..... who preserves our walk .... who strengthens us on the journey, especially as we become aware of our own frail flesh.

• About our Fallen World (5-6)

V5, 'The Lord is your keeper; the Lord is your shade on your right hand. The sun shall not strike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The song continues with the great central truth that the Lord is the Keeper/Protector/Guardian of His people. The Lord's protection moves from help for our frail flesh.....to help against the fallen world that would otherwise assault & harm us.

the sun by day' & 'moon by night' is the Psalmist's way of saying the Lord protects His own throughout the day & night from the spiritual fallout that would otherwise come in our responses to the broken creation. Sun-stroke or heat-exhaustion would have been very familiar to the people of Israel. The Latin word for the moon is 'lunar' from where we get such words as lunacy ... moon stroke .

It's the second lavish promise...but how are we to understand it? We know that Christians are far from immune to sunburn ... let alone mental illness.

시편 94:18~19 “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처럼 여러분 또한 미끄러져 나가는 것 같나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의 걸음걸이를 지키시는 위대한 보호자께서 다시 돌아오십시오...그는 특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심으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힘을 주실 것입니다.

###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해 (5~6 절)

5~6 절 “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의 노래는,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는 진리를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 이런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연약한 육체에서,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의 확장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라 할 때, 이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에서, 영적 낙오로부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강한 햇빛으로 열사병에 시달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친숙했을 것입니다. “달”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는 lunar 라고 하는데, 이는 lunacy (정신병)라는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런 해와 달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이 두 번째 약속인 것을 보게 됩니다...그러나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 질환은 말할 것도 없고, 햇볕에 살이 타는 것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22 years ago I remember experiencing both severe sunburn & mental health struggles at the same time....but in every spiritual way I discovered that rather than those experiences driving me away from the Lord He was my shade to strengthen me through the ordeal.

In the early hours of the morning — when the moon was out & the time of lunacy seemed most intense.....meditation on His word calmed my troubled mind & quieted my restless spirit.

Sinclair Ferguson, He is able to watch over & be our shade against the “fiercest trials & dragons that stop you at 2 am where problems seem to grow in magnitude.” That’s His promise for all who trust Jesus as Lord & the mighty Protector-Saviour

No matter what assaults come our way from the fallen world....as Paul says in Romans 8.... ‘neithe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Do you believe that? Psalm 34:8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blessed is the one who takes refuge in him.” Do that by meditating on His powerful word — especially when the world seems to be closing in & you’re at your wits’ end in those sleepless hours.

He will guard our journey at such times, to transform us by the renewing of our hearts & minds by His Word, the Scriptures....by His Word, become flesh —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promised to be with us always — even to the end of the age.

The Lord our Keeper’s lavish promise is not just a helper for our frail spirits, the protector against a hostile environment.....but a keeper against all evil against us, without exception....

22 년 전에, 저는 햇볕으로부터 심한 화상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습니다...그러나 영적인 방법으로 말미암아, 이런 경험이 내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그들을 비취 힘을 주심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른 새벽, 달빛이 사라지면, 이런 정신적 고통이 가장 강렬했었고...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정신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이런 격렬한 고통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고, 그들을 비추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최악 된 세상 가운데 어떤 공격이 오더라도, 바울은 로마서 8:39 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시편 34:8 절 “*너희는 여호와와 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그의 권능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누리십시오...특별히 세상이 압박해 오고, 잠 못 이루는 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일수록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인생의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 육신의 연약함과 이 최악 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돌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함으로부터 또한 우리를 지키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 About all Evil on the Journey to Eternity (7-8)

V7,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evil; He will keep your life.'

now the great all-encompassing journey of life that is perilous from within & from without the Psalmist summarises as 'all evil'. The Lord as the great Keeper — will keep, that is, guard & protect us ultimately from all evil throughout our lives.

With the final assurance being v8, (that) 'The Lord will keep your going out and your coming in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It's the third superabundant gracious promise. But again, it sounds so extravagant as to pause & ask 'what does the Psalmist mean?'

Christians are far from immune to evil. Last week we began the sermon on Psalm 44 noting that this last century with 20 million recorded martyrs exceeds the sum total of 19 centuries of recorded martyrs.

In the midst of such tribulation where our flesh is weak, our world is increasingly hostile & evil is all around....what comfort is there in these final verses that claim protection from all evil with preservation to the end & into eternity?

Luke 21:16-18 'You will be delivered up even by parents and brothers and relatives and friends, and some of you they will put to death. You will be hated by all for my name's sake. But not a hair of your head will perish.' Jesus' words from Luke help us to understand the promise that the Lord will keep us from all evil

v19, 'By your endurance you will gain your lives.'

It's about God's protective faithfulness that those in Christ would know His protection to persevere in life & its perilous journey until He brings us into His eternal glory

7 절. “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이제 우리는 인생 가운데 모든 위험한 여정은 “모든 악 (모든 환난)”으로 요약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궁극적으로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8 절에서 최종적 확신을 보게 되고 이는 세 번째 엄청난 은혜의 약속입니다. .

“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 너무 과장된 표현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수많은 악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지난주 시편 44 편 말씀으로 한 설교 가운데, 지난 한 세기 동안 순교한 2000 만 명의 순교자는, 지난 19 세기 동안 순교자의 수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를 적대시 하는 세상, 그리고 이런 난무하는 악 가운데, 모든 악으로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보호하심을 말씀하는 이 마지막 구절에는 과연 어떤 위안이 있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21:16-18 절 “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 누가복음을 통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켜주심의 약속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19 절 “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 영광의 날까지 인내케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 The Impossible Task Completed to Secure the Promises

Psalm 24:3-4 'Who shall ascend the hill of the Lord? And who shall stand in his holy place?  
He who has clean hands & a pure heart....'

From where does my help come? It can only come from the Maker of Heaven & Earth — our Keeper. Our precious Lord completed the impossible task to secure these lavish promises when He gave His perfect life on that Cross. In taking on the punishment our evil deserves...He paid the price to secure God's promises....He rose & reigns to keep us from all evil both now & forever...

2 Cor 1:20 "For all the promises of God find their Yes in him. That is why it is through him that we utter our Amen to God for his glory."

시편 24:3~4 절 "여호와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우리의 도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완전한 생명을 바치셨을 때, 불가능한 일을 마치심으로 이 약속을 사수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짓값을 대신 받으셨고, 그는 우리의 짓값을 지불하심을 하나님의 약속을 사수하셨습니다...그는 부활하셨고,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고후 1:20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